

금요 양성 2025년 12월 5일

대림 - 희망과 믿음의 때

재속프란치스칸은 회개의 사람들입니다. 대림기간동안 이 프란치스칸 관점을 통해서 볼 때,

회개를 추구하는 데는 희망과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을 숙고해 보시오:

+ 회칙 19조 - “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회칙 9조 - “

동정 마리아는 주님의 겸손한 여종이시며,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부르심에 흔연히

응답한 분이시다.

그분은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흡모를 받으셨고, 프란치스코는 그 분을 가족의 수호자와 변호자로 선언하셨다.

회원은 성모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신뢰의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성모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야 한다.”

+ 권고 27:

악습을 몰아내는 덕

- 1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도 무지도 없습니다.
- 2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 분노도 동요도 없습니다.
- 3 기쁨과 더불어 가난이 있는 곳에 탐욕도 인색도 없습니다.
- 4 고요와 묵상이 있는 곳에 걱정도 분심도 없습니다.
- 5 자기 집을 지킴에 루카 11:21 주님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원수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 6 자비와 신중함이 있는 곳에 지나침도 완고함도 없습니다.

<https://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writings-of-francis/the-undated-writings/the-admonitions/153-fa-ed-1-page-137>

+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예”라는 대답으로 기쁨과 희망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복되신 어머니를

닮도록 노력합니다. 지금이 주님께서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과 서약시에 약속한 것에 ‘예’

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입니다.

토론과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들

+ 형제회안에서 또 가족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가족이나 형제회 모임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도전적인 때/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 복되신 어머니의 어떤 특성을 닮고 싶습니까? 육화에서의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하느님께 YES 라고 대답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 성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는 권고가 쓰여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권고 27에

따르면, 하느님은 프란치스코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영감을 주신 Anne Mulqueen, OFS

에게 감사드립니다